



태풍 21 호의 영향에 의한 오사카 현지 상황에 대하여

지난, 9 월 4 일 간사이지방을 통과한 태풍의 영향으로 관광객 여러분들이 출입국 및 체류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사이공항은 한때 전면 폐쇄를 하였으나, 신속한 복구작업을 통해 우선 제 2 터미널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등, 순차적으로 운항 편수를 늘리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 전면 복구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사카부내의 공항관련 이외의 철도 등의 교통기관, 도로, 관광시설 등은 거의 평소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 운항편수가 한정된 관계로 방문객이 감소하여, 각 시설과 관광지에는 태풍의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객이 현저히 줄고 있으며, 숙박시설에도 많은 취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의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부디 현지의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관광객 여러분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또한 간사이국제공항의 복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타 주변공항을 이용한 오사카, 간사이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 년 9 월 12 일

공익법인재단 이사장 미조하타 히로시

理事長 溝畑 宏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that reads "Hiroshi Mizokata".